

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VIP 리포트

■ 열살배기 이하 '젊은 기업'의 현황과 시사점
- 기업도 '고령화'하고 있다 -

목 차

■ 열살배기 이하 ‘젊은 기업’의 현황과 시사점 - 기업도 ‘고령화’하고 있다 -

Executive Summary	i
1. 연구 배경	1
2. 젊은 기업 현황의 국제 비교	3
3. 시사점	11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괄 : 백 흥 기 산업전략본부장 (02-2072-6228, hkback@hri.co.kr)

정 책 조 사 실 : 이 장 균 수석연구위원 (02-2072-6231, johnlee@hri.co.kr)

Executive Summary

< 요약 >

■ 연구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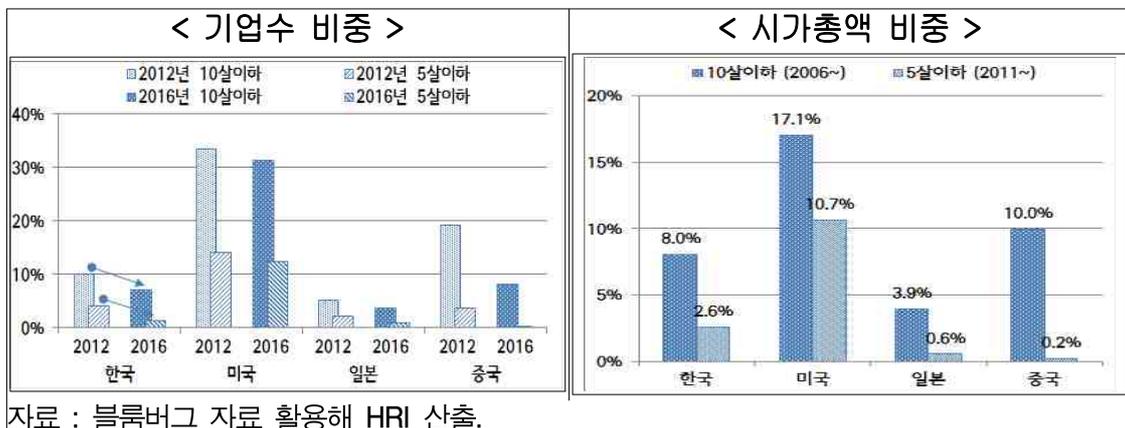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 주요국가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산업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더욱이 산업 재편의 게임 체인저로 등장한 4차산업혁명은 새로운 기술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 창출 기회를 가져다주면서, 이를 활용한 창업 활성화가 핵심 정책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열살 배기 이하의 '젊은 기업'을 대상으로 현황과 재무실적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보았다. 상장사(금융업 제외) 중에서 설립년도를 기준으로 삼아 열살 이하의 상장기업을 선정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등 4개국을 살펴보았다.

■ 젊은 기업 현황의 국제 비교

첫째, 위상 측면에서 보면, ① (기업수) 열살 이하 기업이 2012년 대비 2016년에 26.6% 줄었다. 전체 기업수는 동기간 2.9% 증가했기 때문에 2012년 10.1%였던 열살 이하 기업 비중은 2016년 7.2%로 줄었다. 특히 미국은 열살 이하 기업의 비중이 31.4%에 달해 한자리 수에 머문 한중일 3개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② (업종) 소프트웨어·IT서비스 업종이 낮은 비중을 보이며,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등 ICT 관련 하드웨어 업체가 크게 줄었다. 열살 이하 기업 가운데 소재 업종의 업체가 17%를 차지하고, 그 다음 자본재, 내구소비재·의류, 제약·생명공학, IT하드웨어가 모두 9%이다. 4차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업종인 소프트웨어·IT서비스가 한국은 6%로서 미국(13%), 일본(16%)보다 크게 낮다. 그리고 2012년과 비교해 반도체를 포함한 ICT 하드웨어 관련 업체가 큰 폭으로 줄었다.

③ (시가총액) 열살 이하 기업의 시가총액 비중(2016년말)이 8.0%로서 2012년 8.9%에 비해 축소되었다. 2012년 대비 2016년 이들의 시가총액은 7.6% 늘었지만, 전체 기업이 19.2% 증가한 것과 비교해 크게 저조하다. 한편 미국은 열살 이하 기업의 시가총액이 17.1%이고, 2012년 대비 무려 55.7% 증가를 보이면서 한중일 3개국과 달리 젊은 기업의 성장세가 뚜렷하다.



둘째, 성장성 측면에서, 매출액, 총자산 모두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기업당 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2012년 대비 2016년 매출증감률을 살펴보면 전체기업은 16.6% 감소한 데 비해, 열살 이하 기업은 34.7% 감소해 더욱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기업당 평균 총자산은 전체기업이 2.9% 늘었으나, 열살 이하는 오히려 9.9% 감소했다. 미국과 중국의 열 살 이하 기업은 한국, 일본에 비해 매출액과 총자산이 크게 증가했다.

셋째, 수익성 측면에서,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은 비교적 양호하다. 열살 이하 기업은 매출액영업이익률이 6.9%로서, 2012년 대비 3.2%p 증가했다. 전체 기업은 영업이익률이 6.9%이고 2012년 대비 1.6%p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젊은 기업이 더 많이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매출액순이익률도 마찬가지로 젊은 기업이 더 개선되었다. 영업이익률의 경우, 미국(7.6%)보다 낮지만 중국(6.5%)과는 비슷하고, 일본(3.3%)보다는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기업가치 측면에서 보면, ① (ROA) 총자산이익률인 $ROA(=순이익 / 총자산)$ 가 낮은 업체가 많다. 열살 이하 기업 중 ROA가 0%이상~10% 미만인 업체가 54.9%, 0% 이하인 업체가 30.1%에 달해 자산 효율성이 낮은 업체가 많다. 0% 이하인 업체 비중이 미국(60.5%)보다는 낮지만 일본(15.0%), 중국(4.3%)에 비해 매우 높다. 그리고 2012년에 비해 0%이상~10%미만 업체는 6.0%p 줄어든 대신에 0% 이하인 업체는 4.9%p 늘고, 10% 이상인 업체는 불과 1.1%p 증가하는 데 그쳤다.

② (PBR) 주가순자산배율인 $PBR(=시가총액 / 순자산)$ 이 1 이상이어서 성장 잠재성이 높다고 평가받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열살 이하 기업 중 PBR이 1 미만이어서 순자산보다 못한 가치 저평가를 받은 기업수가 2016년 29.7%로서 2012년 대비 12.8%p 줄어들었다. PBR이 2이상~3미만인 기업수는 4.6%p 줄었지만 1이상~2미만은 6.1%p 늘고, 4이상~5미만은 3.9%p 늘어나는 등 대체적으로 무형자산에 의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렇지만 PBR 1 미만인 업체가 중국은 1.3%, 미국은 13.0%로서 한국(29.7%)과 큰 차이를 보인다.

종합적으로, 젊은 기업이 줄어들고 있으며, 성장성은 떨어지고, 수익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국내 기업도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고, 기업 활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적 노력이 시급히 요청된다.

■ 시사점

첫째, 신생 창업 뿐만 아니라 기존업체의 사업재편을 통해 '젊은 기업'을 활성화하는 종합적인 촉진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특히 4차산업혁명에 부합된 기술 기반 비즈니스의 '젊은 기업'을 육성하는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기술 기반의 도전적 사업을 통해 성장 지향형 창업을 촉진할 목표로 다양한 지원책을 담은 '카테고리형 정책' 개발이 요청된다.

넷째, 수요와 창업 롤 모델을 통해 창업을 유인하는 '창업 풀(pull) 전략'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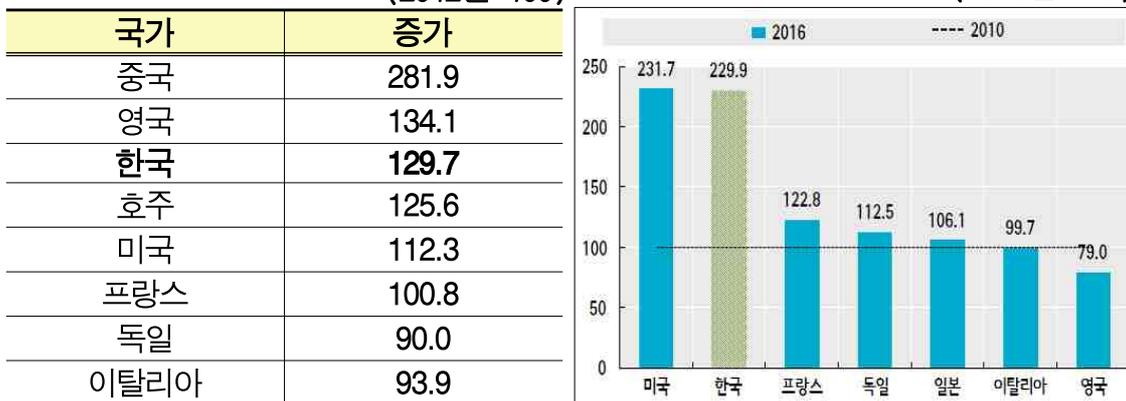
다섯째, 기술 기반의 '젊은 기업'과 기존 업체간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활성화해 '젊은 기업 육성'과 '사업 재편 촉진'을 동시에 얻는 win-win 효과를 기대한다.

1. 연구 배경

- 전세계 주요국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에 약 10년에 걸쳐 산업 활력을 제고하는 혁신 정책을 최우선 아젠다로 설정해놓고 추진중
 -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차세대 제조업 육성을 비롯한 자국생산으로 U턴 촉진,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한 자국내 산업 활성화를 의미하는 'On-Shoring' 정책을 강화
 - 더욱이 ICT(정보통신기술)를 핵심기술로 한 4차산업혁명의 확산은 기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뿐만 아니라 신산업을 등장시키면서, 4차산업혁명을 토대로 한 산업 혁신 실행은 정책의 각축장이 되고 있음

- 혁신 벤처 창업, 사업 재편을 통한 '젊은 기업' 활성화는 정책 실행의 성공 잣대
 - 최근 ICT에 기반한 신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 기회는 다수의 혁신 벤처 등장뿐만 아니라 기존 업체의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계기를 제공
 - 신설기업수가 2012년 100을 기준으로 2016년에 한국 129.7, 영국 134.1, 한국 129.7, 미국 112.3에 달하며, 특히 중국은 281.9로 크게 늘어남
 - 벤처캐피탈 규모는 2010년 100을 기준으로 2016년에 미국은 231.7, 한국은 229.9이었고, 뒤를 이어 프랑스 122.8, 독일 112.5, 일본 106.1로 조사¹⁾

< 신설기업수 증감: 2012년 vs 2016년 > < 벤처캐피탈 증감: 2010년 vs 2016년 >
(2012년=100) (2010년=100)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중국공상총국, OECD. 자료 : OECD.

1) 한국은 벤처캐피탈(2016년)이 12.1억 달러로서 OECD 33개국 중 1위 미국(666.3억 달러), 2위 캐나다 (23.8억 달러), 3위 일본(13.7억 달러) 다음으로 4위 규모 (자료: OECD, Entrepreneurship at a Glance 2017, p.125.).

- 이에 본 연구는 열살 배기로서 설립 10년 이하인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해 현황과 재무실적을 살펴봄

- 현재 열살배기 이하 기업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각국의 산업 활성화 정책과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 기반 비즈니스에 바탕을 두고 새롭게 창업한 신생업체와 사업구조조정으로 재창업된 업체임
- 이들 열살배기 이하 기업의 현황과 실적 등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분석 과정에 미국, 일본, 중국의 기업도 함께 파악

- 연구 방법

- 분석 대상 기업군: 한국, 미국, 중국, 일본 4개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금융업 제외, 본사소재국과 비교국 동일)을 설립년도 기준으로 열살 이하 기업을 선정²⁾
- 자료 수집: 2016년과 추이 비교를 목적으로 4년 전인 2012년의 실적 자료를 수집했으며, 열살 기업에 해당하는 설립년도는 아래 표와 같음

< 분석집단인 열살 기업의 설립년도: 2012년 실적, 2016년 실적 기준 >

구분	2012년 실적 기준		2016년 실적 기준	
	전체 기업	열살 기업	전체기업	열살 기업
설립년도	~2011년	2002년	~2015년	2006년

- 분석 항목: 열살 이하 기업의 위상(기업수, 시가총액), 그리고 재무실적으로서 성장성, 수익성, 기업가치와 관련된 아래와 같은 지표를 선정
 - ① 위상: 기업수 비중, 업종, 시가총액
 - ② 성장성: 매출액, 총자산
 - ③ 수익성: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 ④ 기업가치: ROA(Return on Assets; 총자산이익률), PBR(Price Book-value Ratio; 주가순자산배율)
- 자료원 : 블룸버그의 국가별 상장기업 가운데 설립년도와 업종 확인이 가능한 기업을 활용³⁾

2) 한국 벤처기업의 창업후 상장까지 소요기간은 평균 9.6년 소요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17년 벤처기업정밀 실태조사』, 2017.12.).

3) 국가별 해당 거래소와 기업수 현황은 “※[부록] 분석 자료 현황”(p.1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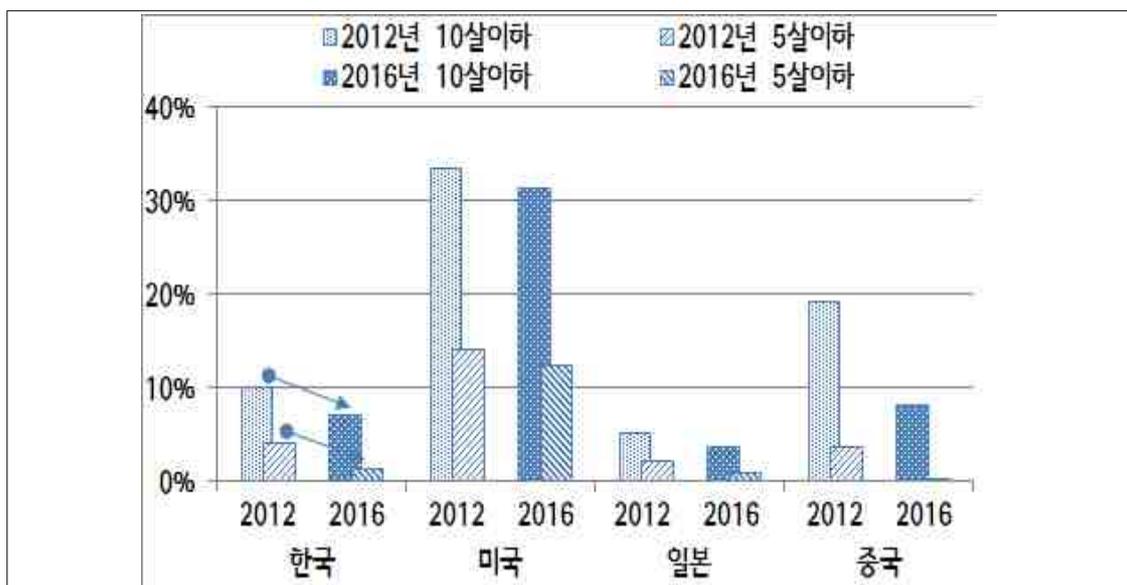
2. 젊은 기업 현황의 국제 비교

○ (위상) 젊은 기업의 위상이 위축되고 있으며, ICT 업종이 약세를 보임

① (기업수) 한국은 열살 이하 기업이 7.2%(미국 31.4%) 차지하며, 2012년에 비해 26.6% 감소

- 2016년 열살 이하의 젊은 기업은 116개사로서 전체 기업의 7.2%를 차지
 - 2012년 동 비중이 10.1%인 것과 비교해 비중 축소
 - 미국은 31.4%로서, 한자리수에 불과한 중국(8.2%), 일본(3.8%), 한국(7.2%)과는 커다란 차이를 보임
- 2012년 대비 2016년에 열살 이하 기업이 큰 폭(-26.6%)으로 감소
 - 동기간에 전체 기업이 2.9% 증가한 데 비해 열 살 이하 기업은 큰 폭(-26.6%)으로 감소하면서 이들의 기업수 비중이 축소
 - 열살 이하 기업은 4개국 모두 감소했지만, 이중 한국(-26.6%), 일본(-27.9%), 중국(-46.8%) 등 3개국이 큰 폭으로 준 반면 미국은 불과 0.7% 감소에 그쳤음

< 기업수 비중 (열살 이하, 다섯살 이하): 2012년 vs 2016년 >



자료 : 블룸버그 활용해 HRI 산출.

② (업종) 한국은 소프트웨어·IT서비스 업종이 낮은 비중이며, 반도체, 하드웨어 등 정보통신 관련 하드웨어 업체가 크게 감소

- 한국은 열살 이하 기업 가운데 소재 업종의 업체가 가장 많으며, 소프트웨어·IT서비스 업종의 비중이 낮음
 - 2016년 기업수 기준으로 열살 이하 기업의 5대 업종을 살펴보면, 한국은 소재가 가장 많은 비중(17%)을 차지하고, 그 다음 자본재, 내구소비재·의류, 제약·생명공학, IT하드웨어가 같은 9%를 차지
 - 4차산업혁명을 이끌 핵심업종의 하나인 소프트웨어·IT서비스 업종은 한국이 6%로서 미국(13%), 일본(16%)보다 낮으며 5대 업종(비중순)에서 제외
- 한국은 제약·생명공학, 건강관리, 가정·개인용품·미디어 업종에서 소폭 늘어난 반면, IT 하드웨어 및 자본재 업종에서 큰 폭으로 감소
 - 2012년과 2016년의 업종별 감소 기업수를 조사해보면, 한국은 전체 감소 기업수 중 반도체를 포함한 IT하드웨어 업종이 42%를 차지

< 5대 업종 (2016년 기준, 비중순) >

업종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에너지		15%		
소재	17%	8%	8%	14%
자본재	9%	8%	12%	27%
상업·전문서비스			10%	
내구소비재·의류	9%			8%
소비자 서비스			8%	
제약, 생명공학	9%	16%		
S/W·IT서비스		13%	16%	6%
IT HW·장비	9%			9%
비중 합계	53%	45%	53%	65%

< 3대 증감 업종 (기업수 기준) >

업종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상업·전문서비스			1	
미디어	2		1	2
식품·식료품소매				1
가정·개인용품	2			1
건강관리	2	6		
제약, 생명공학	3	90		
SW·IT서비스		9		
유틸리티			1	
에너지		-28		
소재		-14		-35
자본재	-8			-50
미디어		-12		
소매			-7	
제약, 생명공학			-8	
SW·IT서비스			-8	
IT HW·장비	-9			-29
반도체·장비	-13	-12		

자료 : 블룸버그 활용해 HRI 산출.

- 주1) 업종은 GICS (Global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의 Industry Group (24개) 기준.
- 주2) 비중은 열살 이하 전체 기업수에서 해당 업종에 속한 기업수의 비중(%).
- 주3) 2012년과 2016년의 기업수를 기준으로 '증가', '감소'를 구분해 이중 3대 업종만 표기.

③ (시가총액) 열살 이하 기업이 전체 시가총액의 8.0%를 차지하며, 2012년 대비 7.6% 증가 (전체기업 19.2% 증가)

- 열살 이하 기업의 시가총액 비중(2016년말)은 8.0%

- 이는 2012년 8.9%에 비해 축소
- 중국은 열살 이하 기업 비중이 10.0%로 한국보다 약간 높지만, 일본은 3.9%로서 크게 낮은 수준
- 미국은 동 비중이 17.1%이며, 한중일 3개국이 2012년에 비해 비중이 축소된 반면, 2012년 16.7%에서 2016년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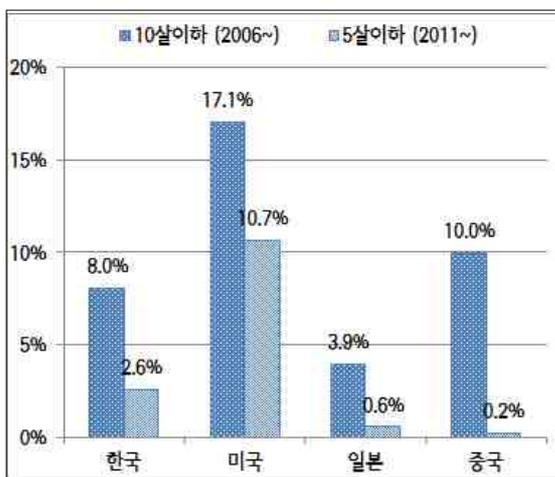
- 2012년말 대비 2016년말 열살 이하 기업의 시가총액은 7.6% 증가 (미국 +55.7%, 중국 +38.0%, 일본 +3.3%)

- 한국은 시가총액증감률이 전체기업은 19.2% 증가한 데 비해 열 살 기업은 7.6% 증가에 그침
- 이러한 경향은 일본,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본은 전체 71.8% 증가, 열살 3.3% 증가, 그리고 중국은 각각 168.4% 증가, 38.0% 증가를 보임
- 반면에 미국은 전체기업 52.1% 증가, 열 살 5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한중일 3개국의 추세와 비교해 보면 젊은 기업의 성장세가 뚜렷

< 시가총액 >

- 비중 (2016년 말)

- 증감률 (2012년말 vs 2016년말)



국가	전체 기업	열살 이하	다섯살 이하
한국	19.2%	7.6%	-29.5%
미국	52.1%	55.7%	156.4%
일본	71.8%	3.3%	-56.0%
중국	168.4%	38.0%	-91.4%

자료 : 블룸버그 활용해 HRI 산출.

○ (성장성) 매출액, 총자산 모두 급격히 감소해 성장성 약화

- 매출: 기업당 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2012년 대비 2016년 매출증감률을 살펴보면 열살 이하 기업은 34.7% 대폭 감소
 - 한국: 전체 기업은 16.6% 감소한 데 비해 열살 이하 기업은 무려 34.7% 감소해 더욱 부진
 - 미국: 전체 기업은 7.6% 증가, 열살 이하 기업은 6.2% 증가
 - 일본: 전체 기업은 20.9% 증가했지만, 젊은 기업은 12.6% 감소
 - 중국: 전체 기업 14.3% 증가했고, 열살 이하는 96.7% 증가
 - 따라서 한국은 나머지 3개국에 비해 전체기업, 열 살 이하 기업 모두 매출 성장성이 부진한 것으로 평가

- 총자산: 열살 이하 기업의 기업당 평균 총자산은 9.9% 감소 (전체기업 2.9% 증가)
 - 열살 이하 기업의 평균 총자산은 4개국중 한국(-9.9%)만 줄어들었으며, 반면에 미국(+30.3%)과 중국(+138.8%)은 대폭 증가
 - 전체 기업도 한국은 총자산증가율이 2.9% 증가에 불과해 전반적으로 자산 확보 수준이 크게 부진한 상황

< 성장성 : 매출액증감률, 총자산증감률 (2012년 vs 2016년) >

구분	매출액증감률			총자산증감률		
	전체기업	열살 이하	다섯살 이하	전체기업	열살 이하	다섯살 이하
한국	-16.6% (-1.7%)	-34.7% (-44.0%)	-49.7% (-77.3%)	2.9% (21.3%)	-9.9% (-23.3%)	-5.6% (-58.3%)
미국	7.6% (9.5%)	6.2% (9.7%)	20.5% (36.6%)	23.6% (25.8%)	30.3% (34.1%)	97.3% (122.9%)
일본	20.9% (20.3%)	-12.6% (-37.8%)	-37.1% (-71.9%)	27.3% (26.8%)	2.8% (-26.0%)	-19.9% (-64.8%)
중국	14.3% (43.5%)	96.7% (4.7%)	-81.4% (-98.7%)	45.5% (82.6%)	138.8% (27.1%)	-75.5% (-98.3%)

자료 : 블룸버그 활용해 HRI 산출.

주 : 괄호 안은 전체기업의 매출액과 총자산을 기준으로 증감률을 산출한 수치임.

○ (수익성) 열살 이하 기업의 수익성은 비교적 양호

- 매출액영업이익률: 열살 이하 기업은 매출액영업이익률이 6.9%로서, 2012년 대비 3.2%p 증가
 - 한국: 2016년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전체 기업과 열살 이하 기업이 6.9%로 동일하며, 2012년에 비해 전체 기업보다 열살 이하 기업이 크게 개선
 - 미국: 전체 기업(9.4%), 열살 이하 기업(7.6%) 모두 다른 국가보다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으며, 2012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
 - 일본: 열살 기업이 3.3%로 다른 국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인 데다가, 2012년에 비해 더욱 부진
 - 중국: 전체 기업과 열살 이하 기업 모두 6.5%이며, 2012년 실적과 거의 변동 없음

- 매출액순이익률: 열살 이하 기업은 매출액순이익률이 3.5%이며, 2012년 대비 2.0%p 증가
 - 한국: 2016년 매출액 순이익률이 전체 기업 4.2%, 열살 이하 3.5%이며, 영업이익률 경우와 마찬가지로 2012년에 비해 전체 기업에 비해 열 살 이하 기업이 2.0%p로 크게 개선
 - 미국: 열살 이하 기업이 4.3%이며, 2012년에 비해 소폭(-1.5%p) 하락
 - 일본: 열살 이하 기업이 1.3%로 다른 국가에 비해 아주 낮은 수준
 - 중국: 열살 이하 기업이 4.3%이며, 2012년과 거의 동일 수준

< 수익성 :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2016년) >

구분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전체기업	열살 이하	다섯살 이하	전체기업	열살 이하	다섯살 이하
한국	6.9% (1.6%p)	6.9% (3.2%p)	7.8% (4.6%p)	4.2% (0.7%p)	3.5% (2.0%p)	4.8% (3.6%p)
미국	9.4% (-0.5%p)	7.6% (-0.7%p)	7.3% (2.5%p)	5.8% (-0.5%p)	4.3% (-1.5%p)	5.0% (-0.3%p)
일본	6.2% (1.4%p)	3.3% (-1.9%p)	3.0% (-0.6%p)	3.6% (1.6%p)	1.3% (-0.7%p)	1.2% (-0.8%p)
중국	6.6% (0.7%p)	6.5% (-0.9%p)	14.7% (9.3%p)	5.1% (1.1%p)	4.3% (-0.7%p)	11.4% (8.3%p)

자료 : 블룸버그 활용해 HRI 산출.

주 : 괄호 안은 2012년 대비 2016년의 차이(%p)를 나타냄.

○ (기업가치) ① 총자산이익률인 ROA(=순이익 / 총자산)가 낮은 열살 이하 기업이 다수 존재

- 열살 이하 기업 중 ROA가 0% 이상~10% 미만인 업체가 54.9%, 0% 이하인 업체는 30.1%에 달해 자산 효율성이 떨어지는 업체가 많은 수준

· ROA (=순이익 / 총자산)를 구간별로 나눠 2012년과 2016년의 실적 기준으로 해당되는 구간에 속하는 업체수 비중을 산출

· ROA가 10% 미만에 해당하는 0%이상~10% 미만인 업체가 54.9%이고, 0% 이하인 업체가 30.1%에 달해 자산 이용의 효율성이 낮음

· 2012년에 비해 0%이상~10%미만 업체수는 6.0%p 줄어든 대신에 0% 이하인 업체 비중은 4.9%p 늘고, 10% 이상인 업체는 1.1%p 증가에 불과

- 한편, 미국은 ROA 0% 미만인 업체 비중이 60.5%, 그리고 0~10% 미만 업체 비중이 31.4%로서 자산효율성이 떨어지는 업체가 많은 반면에 중국은 0~10% 미만 업체가 74.9%, 10% 이상이 20.8%로 효율성이 높음

· 10% 이상: 중국 20.8%, 한국 15.0%, 일본 9.7%, 미국 8.1%

· 0% 이상 - 10% 미만: 일본 75.2%, 중국 74.9%, 한국 54.9%, 미국 31.4%

· 0% 미만: 미국 60.5%, 한국 30.1%, 일본 15.0%, 중국 4.3%

· 중국은 ROA 0% 이상인 기업이 약 96%에 달해 높은 효율성을 시현

< 열살 이하 기업의 ROA(총자산이익률): 기업수 비중, 2012년 vs 2016년 >
(%, %p)

구분	<-50	-50 ~40	-40 ~30	-30 ~20	-20 ~10	-10 ~0	0 ~10	10 ~20	20 ~30	30 ~40	40 ~50	>50	합계
한국	3.5	1.8	2.7	3.5	6.2	12.4	54.9	12.4	2.7	0.0	0.0	0.0	100
차이	2.7	1.8	0.9	2.7	1.0	-4.1	-6.0	0.2	1.8	-0.9	0.0	0.0	-
미국	23.4	5.4	4.8	4.2	7.4	15.1	31.4	4.9	1.3	0.3	0.3	1.3	100
차이	-3.5	2.7	2.0	1.5	0.6	1.5	0.1	-3.6	-0.5	-0.5	-0.3	-0.1	-
일본	0.9	0.0	0.0	0.9	2.7	10.6	75.2	8.0	0.0	1.8	0.0	0.0	100
차이	0.9	-0.7	-2.0	-1.1	0.7	1.4	11.4	-5.2	-4.6	-0.2	-0.7	0.0	-
중국	0.0	0.0	0.4	0.4	0.9	2.6	74.9	17.7	2.6	0.4	0.0	0.0	100
차이	0.0	0.0	0.4	0.2	0.4	-1.3	-2.5	0.9	1.7	0.2	0.0	0.0	-

자료 : 블룸버그 활용해 HRI 산출.

주1) 차이는 ROA 구간별 2012년 기업수 비중과 2016년 기업수 비중간 차이(%p)를 의미.

2) 구간 표기에서 '0~10'은 '0%이상 10%미만'을 가리키며, 기타 구간 표기도 동일 의미.

○ (기업가치) ② 주가순자산배율인 PBR⁴⁾(=시가총액 / 순자산)이 1 이상이어서 성장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받는 열살 이하 기업이 증가

- 열살 이하 기업 중 PBR이 1이상인 기업이 증가

- PBR이 1 미만이어서 순자산보다 못한 가치 저평가를 받은 기업수가 2016년 29.7%를 차지하며 2012년도 대비 12.8%p 축소
- PBR이 2이상~3미만인 기업수는 4.6%p 줄었지만 1이상~2미만은 6.1%p 늘었고, 4이상~5미만은 3.9%p 늘어나는 등 대체적으로 무형자산에 의한 성장 잠재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일본은 PBR 1 미만인 업체 비중이 41.2%에 가장 많은 반면에 중국은 동 비중이 1.3%에 불과

- PBR 1 미만인 업체가 중국 1.3%, 미국 13.0%로서 한국 29.7%, 일본 41.2%를 크게 능가
- 미국은 2012년 대비로 PBR 구간별로 업체수 비중이 변화가 거의 없음
- 중국은 1이상-3미만인 업체가 크게 준 대신에 5이상인 업체가 크게 증가

< 열살 이하 기업의 PBR(주가순자산배율): 기업수 비중, 2012년 vs 2016년 >
(%, %p)

구분	0~1	1~2	2~3	3~4	4~5	5~6	6~7	7~8	8~9	9~10	>10	합계
한국	29.7	39.6	12.6	5.4	5.4	2.7	0.0	0.9	0.0	0.0	3.6	100
차이	-12.8	6.1	-4.6	0.9	3.9	2.0	0.0	0.9	0.0	0.0	3.6	-
미국	13.0	25.2	15.4	11.5	7.7	5.4	2.9	3.8	2.0	0.9	12.1	100
차이	-0.9	-3.3	0.9	0.7	1.7	1.7	0.0	2.0	-0.7	-1.2	-0.8	-
일본	41.2	21.9	14.0	8.8	4.4	0.9	2.6	0.9	0.0	0.9	4.4	100
차이	-12.0	-0.1	3.0	8.1	-2.1	-1.7	2.6	-0.4	-0.6	0.9	2.4	-
중국	1.3	6.7	15.1	18.7	9.8	11.6	8.9	6.7	5.8	4.4	11.1	100
차이	0.6	-32.3	-18.5	3.1	3.3	9.7	6.6	6.7	5.5	4.4	10.9	-

자료 : 블룸버그 활용해 HRI 산출.

주1) 차이는 PBR 구간별 2012년 기업수 비중과 2016년 기업수 비중간 차이(%p)를 의미.

2) PBR 구간 표기는 '0~1'은 '0이상 1미만'을 가리키며, 기타 구간 표기도 동일 의미.

4) PBR(Price Book-value Ratio; 주가순자산배율) = 주가 / 1주당 순자산 = 시가총액 / 순자산.

· PBR은 순자산에 대한 주가가 설정 수준을 통해 성장력을 평가.

· PBR > 1.0 : 시가총액 > 순자산. 기업 가치가 순자산 이상으로서 고평가.

· PBR < 1.0 : 시가총액 < 순자산. 기업 가치가 청산 가치에도 못미칠 정도로 저평가.

- (종합평가) 한국은 젊은 기업이 줄어들며, 성장성은 떨어지고, 수익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현상 유지를 통해 안정을 희구하는 '고령화'가 진행
 - '젊은 기업'이 줄고 있으며, 수익성은 유지되고 있는 반면 성장성 및 기업 가치 측면에서 뒤쳐짐
 - 열살 이하의 젊은 기업이 축소. 미국과 대비해 큰 차이 시현
 - 4차산업혁명을 이끌어갈 ICT 기기 업종은 감소하고, 소프트웨어·IT서비스 업체가 미일에 비해 낮은 비중
 - 매출(평균), 총자산(평균) 등 성장성 지표는 나빠지고 있는 반면에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등 수익성 지표는 비교적 양호
 - 그렇지만 총자산이 줄어드는 가운데 ROA가 떨어지고 있으며, PBR 1이상인 기업이 늘고 있지만 미국, 중국에 비해 낮은 수준
 - 따라서 젊은 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어 기업이 정신을 고취하고, 기업 활력을 제고하는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

< 분석 결과 정리 >

평가 항목		주요 분석 내용
위상	기업수	· 열살 이하의 젊은 기업이 축소. 미국과 대비
	업종	· 반도체를 포함한 ICT 하드웨어 업종은 감소가 크며, 소프트웨어·IT서비스 업종은 낮은 비중
	시가총액	· 열살 이하 기업의 시가총액 비중이 줄었으며, 증가율은 미국, 중국과 큰 차이를 보임
성장성	매출	· 기업당 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전체기업은 물론 열살 이하도 크게 감소
	총자산	· 기업당 평균 총자산이 전체기업은 증가한 데 비해 열살 이하 기업은 감소
수익성	영업이익률	· 전체기업과 동일하이며, 2012년 비해 크게 개선
	순이익률	· 전체기업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2012년 비해 크게 개선
기업 가치	ROA	· ROA가 낮은 수준으로서 자산효율성이 떨어짐
	PBR	· PBR이 1이상인 기업이 늘어나 성장력 있다고 평가 받고 있지만, 많은 업체가 여전히 낮은 수준에 집중

3. 시사점

- 첫째,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수단으로 '젊은 기업' 육성을 목표로 한 종합적인 촉진책을 마련해야 한다
 - 성장성 있는 '젊은 기업'의 시장 진입은 미래형 신산업의 등장과 기존 사업의 재편을 촉진함으로써 산업 구조의 전반적인 신진대사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
 - '젊은 기업'군에는 신설 창업업체 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의 분사, M&A 등 사업 재편을 통한 설립된 업체까지 포괄되어야 하며, 이들의 창업부터, 성장, 재편에 이르는 전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책을 수립
 -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젊은 기업'에게는 인력 및 기술 공급, 금융 및 제도적 지원, 국내외 시장개발 등 종합 지원책을 제공

- 둘째, 특히 4차산업혁명에 부합된 기술 기반 비즈니스의 '젊은 기업'을 육성하는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ICT 업종으로 분류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응용서비스 뿐만 아니라 ICT 업종 이외의 전통적인 업종에서 ICT를 신기술 및 신서비스 개발에 활용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
 - 특히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글로벌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기술 기반의 산업 생태계에의 조속한 편입을 지원할 정책 개발이 요청
 - 4차산업혁명으로의 산업 기반 확산을 필요로 하는 해외 국가를 대상으로 한 ICT 복합 사업을 추진해 국내 업체의 기술 및 제품 개발을 촉진
 - 또한 금융, 인적 기반 뿐만 아니라 AI(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핵심 기술을 공동 제공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지원 인프라 구축이 필요

- 셋째, 기술 기반의 성장 지향형 창업 촉진을 목표로 다양한 지원책을 담은 '각테일형 정책' 개발이 요청된다.
 - 수익성 중시 경향에서 벗어나고 4차산업혁명에 기반한 신기술 기반 사업의 모험적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성장성 중시의 정책 수립이 필요
 - 이의 조건에 부합한 신기술 기반 사업에 대해 R&D부터 사업 개발, 인

- 력·기술 등 인프라 지원, 법제도 및 세제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담은 4차산업혁명 대응용 '각데일 정책' 개발이 요청
- 국가 핵심 정책 분야(기술, 사업 개발)에 대해서는 R&D를 비롯해, 신제품과 서비스 개발, 인프라 구축, 수요 시장 적용 테스트에 이르는 '4차산업혁명 특구' 창출, 그리고 규제 및 세제 유인책을 강구
- 넷째, 시장 수요와 성공한 창업 롤(role) 모델을 통해 창업을 유인하는 '창업 풀(pull) 전략'이 필요하다
 - 정부 등에 의한 기술, 자금 지원에 의해 창업을 활성화하는 '창업 푸쉬(push) 전략'으로는 기술 및 시장 실패에 대한 리스크가 크고 실행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어서, 또다른 대안으로서 성공한 창업 롤 모델에 자극을 받아 수요자 스스로 창업에 나서는 '창업 풀(pull) 전략'도 함께 필요
 - 다수의 성공 창업 모델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요자인 대기업·중소기업 특히 제조업체가 기술 확보를 목적으로 국내 스타트업 및 벤처 기업 대상의 M&A 활용도를 제고하는 여건을 개선하는 게 요청
 - 사내 벤처의 육성과 차후 사업 분할에 이르기까지 금융 및 세제 지원 범위와 기간을 확대 적용하도록 제도적 정비가 요청
- 다섯째, '젊은 기업'과 기존 업체간의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을 활성화해 '젊은 기업 육성'과 '사업 재편 촉진'을 동시에 기대한다.
 -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지닌 '젊은 기업'과 자금, 시장 기반을 가진 기존 업체간의 협력을 창출해 '젊은 기업'은 성장 기반을 확보하고, 기존 업체는 고부가화 사업으로의 재편 기회를 확보하는 상생 기회를 마련
 - 제조업과 연계한 신규 사업 아이디어를 지닌 기술혁신형 스타트업을 발굴해 이를 기존 업체와 연결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을 공유해 사업화하는 오픈형 'BM(비즈니스 모델) 마켓'을 운영
 - 특히 현재 제조업에 필요한 ICT 기반의 서비스 개발에 기술 기반의 '젊은 기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지원

이장균 수석연구위원 (02-2072-6231, 010-8776-7227, johnlee@hri.co.kr)

※ [] 분석 자료 현황: 수집 대상 거래소, 기업수 (2016.12.31 기준)

(단위: 개사)

	한국	미국	중국	일본
거래소	- 코스피 - 코스닥 - 코넥스	· New York · NASDAQ · Chicago · BATS · BATS Y · EDGA · EDGX · NYSE Arca · NYSE MKT LLC · OTC US · OTC BB · OTC Markets · FIRNA ADF · Investors Exchange · Trade Reporting Facility LLC	· 上海 · 深圳	· 東証 · 札幌 · 福岡 · 名古屋 · 日本取引所外取引(Japan Off-Exchange) · Chi-X Japan · SBIジャパンネクス · SBIジャパンネクス U-market · SBIジャパンネクス X-market
전체 상장 기업	2,337	7,957	2,964	3,533
설립년도 (~2015년)와 업종명 기재한 기업	1,610	4,844	2,817	3,134
열살 이하	116	1,519	231	119
다섯살 이하	23	606	6	30

*주 : 금융업제외, 2016.12.31일 기준.